

중학생의 소속감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 및 친구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단기-종단적 분석*

이 승 진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박사과정

교수

친밀한 친구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속감 지향성은 소속감을 추구하는 동기로,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으로 구분된다.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은 심리적 적응 및 대인관계 특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소속감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과 친구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중학교의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검사를 실시했다. 친구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수신 중심성 분석을 통해 측정했다. 다중 회귀모형을 사용한 분석 결과는 첫째, 학기 초의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 지향성의 효과는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해도 유의했으나, 결핍감소 지향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성장 지향성은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러한 효과는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과 학기 말 심리적 적응 수준을 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해도 유의했다. 셋째, 학기 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의 효과는 학기 초 및 학기 말의 심리적 적응을 모형에 함께 투입해도 유의했다. 본 연구는 단기-종단적 설계를 통해 소속감 지향성이 청소년의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심리적 적응과 친구 네트워크 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했다.

주요어 : 성장 지향성, 결핍감소 지향성, 외로움, 지각된 스트레스,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 본 연구는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고영건,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법학관 구관 303호 / Tel: 02-3290-2863, E-mail: elip@korea.ac.kr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집단 내 소속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욕구다(Baumeister & Leary, 1995). Leary와 Cox(2008)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인간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동기라고 보았다. 소속감은 대인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gerty, Williams, McLaren & Challis, 2009).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소속감은 외로움,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사고 및 행동 등 정신건강 상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Baumeister & Leary, 1995; Choenarom, Williams, & Hagerty, 2005; Conner, Britton, Sworts, & Joiner, 2007; Hagerty, Williams, Coyne, & Early, 1996).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은 특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초점이 자기 지향적 행동에서 타인 지향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시기다(Eisenberg & Fabes, 2006). 청소년은 아동이나 성인보다 또래 집단에 수용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더 강하며 또래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Newcomb, Bukowski, & Pattee, 1993). 친구 관계를 통해 소속 및 수용의 욕구가 충족된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신체적 건강, 긍정 정서, 효능감, 학업 관여 및 성취 수준을 나타낸다(Begen, & Turner-Cobb, 2012; Gregory, & Weinstein, 2004). 또래 관계에서 거절 및 소외를 경험한 청소년은 불안,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나 공격 행동 같은 외현화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Coie, Terry, Lenox, Lochman, & Hyman, 1995; 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Parkhurst, & Asher, 1992).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변

인은 우울, 불안, 자존감, 자아탄력성, 효능감 등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스스로 지각한 스트레스와 외로움 수준의 평가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됐다. 청소년기의 높은 스트레스는 정서조절에서의 어려움을 유발하고, 낮은 정신적 웰빙, 우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김명식, 2009; 김은진, 2015; 송지원, 조한익, 2018; Dvir, Ford, Hill, & Frazier, 2014). 통계청에서는 청소년의 중요한 심리 변인으로서 스트레스 인지율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 후반대인 성인보다 더 높은 34.2%로 나타난다(통계청, 2021). Choenarom, William과 Hagerty(2005)는 종단연구를 통해 소속감을 적게 느끼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보호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Sandler, Miller, Short & Wolchik, 1989).

외로움은 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가 질적 혹은 양적으로 현저히 부족할 때 발생하는 불쾌한 경험이다(Perlman & Peplau, 1984). 청소년은 관계 및 소속 욕구가 높아 성인보다 외로움에 더 취약하다(Arnett, 2015; Russell, Peplau & Curtona, 1980).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은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배척당하거나 고립된 상황에 대한 정서적 상태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최미경, 2006). 세상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정서는 자살사고나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최보가, 임지영, 1999). 청소년의 외로움은 낮은 자존감, 우울

증, 식이장애, 음주, 흡연 등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옥수, 1997; Corsano, Majorano, & Champretavy, 2006; Stewart, 2004). 국내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자살 충동이 있는 청소년의 13.1%가 외로움과 고독을 자살하고 싶은 이유로 언급했다(통계청, 2018). 정영주와 정영숙(2007)의 연구에서도 자살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은 친구 관계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감을 추구하는 동기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Lavigne, Vallerand와 Crevier-Braud(2011)은 소속감을 추구하는 동기를 소속감 지향성(belongingness orientation)이라고 정의하면서 소속감 지향성 모델(Belongingness Orientation Model; BOM)을 소개했다. 소속감 지향성 모델에서는 두 유형의 소속감 지향성이 존재하며, 소속감 지향성이 개인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두 유형의 소속감 지향성은 성장 지향성(growth orientation)과 결핍감소 지향성(deficit-reduction orientation)이다. 성장 지향성은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지금보다 발전하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결핍감소 지향성은 사회적 공허함을 채우고,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고 수용 받아 위안을 얻기 위한 동기를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은 심리적 적응 및 대인관계 특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BOM 모델에 따르면, 성장 지향성은 상대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중요한 타인에게 헌신하게 하며, 부정적인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한다(Lavigne et al., 2011). 반

면, 결핍감소 지향성은 사회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과의 친밀감을 갈망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본다(Lavigne et al., 2011). 이러한 차이로 인해 BOM 모델에서는 성장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더 만족하고, 더 높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을 느끼는 반면, 결핍감소 지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로움, 사회 불안 등 낮은 수준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한다(Lavigne et al., 2011). Pillow, Malone와 Hale(2015)은 성장 지향성을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한 접근 동기(approach motivation), 결핍감소 지향성을 사회적 거절에 대한 회피 동기(avoidance motivation)로 설명하기도 했다.

Lavigne 등(2011)은 일련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성장 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이 더 높고, 결핍감소 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이 낮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성장 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불안 수준이 낮고 유다이모닉 웰빙(eudaimonic well-being)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장 지향성은 안정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결핍감소 지향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불안 및 외로움 수준이 높고 자존감, 대인관계 만족도 및 유다이모닉 웰빙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결핍감소 지향성은 불안 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신대호(2019)가 군대 생활 적응에 대한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의 영향력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성장 지향성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을 통제하고도 군 생활 적응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반면, 결핍감소 지향성은 다른 요인

을 통제했을 때 군 생활 적응 수준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다.

소속감 지향성과 심리적 적응 간 관계를 확인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현재까지 진행된 소속감 지향성과 심리적 적응 간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BOM의 가정이 선행연구 결과에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 BOM 모델에서는 성장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핍감소 지향성은 심리적 적응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제시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가정대로 두 유형의 소속감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심리적 변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오지 않는 등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소속감 지향성과 심리적 적응 간 관계를 밝힌 연구가 아직 많지 않으므로 선행 연구자의 가정에 기초해서 두 소속감 지향성 간 관계와 각 소속감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하고 있어 소속감 지향성에 따라 심리적 적응 수준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Lavigne 등(2011)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유일하게 단기-중단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들은 결핍감소 지향성이 높은 대학생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동료들은 그들의 사회적 수용(예: “그와 함께 일했던 것이 좋았다”, “가능하다면 그와 다시 팀을 맺고 싶다”) 및 사회적 관여도(예: “그는 팀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를 낮게

평가했다. 성장 지향성이 동료들의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는 소속감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횡단적 설계에 기초한 연구 결과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적응을 대부분 자기 보고식 검사로 측정했다. Pillow 등(2015)은 소속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계의 특징으로 만남의 빈번함, 상호작용의 긍정성, 관계의 시간적 안정성, 호혜성 등을 꼽았다. 즉, 소속감 지향성에 따른 심리적 적응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실제 상호작용의 질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Parker와 Asher(1993)도 청소년의 외로움은 학급 내에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존재 여부 및 친구 관계에서 지각되는 질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인관계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활용은 자기 보고식 검사에 의존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다.

친구 관계의 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친구 네트워크를 평가하는 것이다. 친구 네트워크는 한 개인이 학급 내에서 얼마나 많은 친구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Wasserman, & Faust, 1994). 친구 네트워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이름을 지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중심성을 계산한다(박종효, 김진구, 운영, 2017; 이민아, 신철균, 강정환, 2018). 연구 참여자를 친한 친구라고 보고하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연구 참여자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계산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급 내 친구 네트워크 중심

성이 높을수록 학교 내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내고 친구와 친밀하고 상호협조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등 학급 내에서의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중효, 김진구, 윤영, 2017; 이민아, 신철균, 강정환, 2018). 친구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자기 보고식 검사에만 의존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구 관계의 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의 현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청소년의 소속감 지향성이 친구 네트워크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중단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속감 지향성이 대인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소속감 지향성 연구는 주로 연구 참여자 본인이 보고한 대인관계의 질이나 심리적 적응 수준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보고와 실제 대인관계의 질은 다를 수 있다. 이민아, 신철균과 강정환(2018)은 대인관계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보고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인식능력의 부재로 인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지은, 김보은과 최승원(2020)도 네트워크 내에서 연결된 대상의 방향성을 활용하면 친밀도, 대화 횟수 등을 정량화하여 대인관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이민아, 신철균과 강정환(2018)은 횡단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면서 중단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친구 네트워크와 심리적 적응 간 관련성을 중단적으로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소속감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성인보다 더 중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소속감 지향성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은 학기 초에 자신이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을 찾는 탐색의 시간을 활발하게 갖고, 1학기 말이면 이미 집단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만약 학기 말까지도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지 못하거나 따돌려지는 경우 외로움과 같은 내현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곽금주, 2000).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평가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반 중단적 분석이 효과적일 수 있다. Lavigne 등(2011)도 결핍감소 지향성이 높은 대학생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들은 그들의 사회적 수용 및 사회적 관여도를 낮게 평가했던 것을 확인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중단적 분석에 기초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면 소속감 지향성에 따라 실질적인 친구 관계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소속감 지향성의 두 하위 요인과 친구 네트워크 및 심리적 적응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자들의 가정처럼 성장 지향성이 결핍감소 지향성보다 친구 네트워크 및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중단적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지향성은 결핍감소 지향성보다 학기 초 및 학기 말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둘째, 성장 지향성이 결핍감소 지향성보다 학기 초 및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수신 중심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 중학교의 2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이 중학교의 2학년은 총 6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각각 3월과 7월에 연구자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했다. 모든 절차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거친 후 진행되었다. 특성 변인인 소속감 지향성은 학기 초에 1회 측정했다. 상태 변인인 외로움, 스트레스, 네트워크 중심성은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걸쳐 두 차례 측정했다. 2학년 전체 학생 총 149명 중 137명이 학기 초와 학기 말 조사에 모두 참여했다. 이들 중 두 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명을 제외한 118명(79.19%)이 최종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주관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의 성실도와 무관하게 수집된 자료 모두를 분석에 활용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이 67명(56.78%) 여성이 51명(43.22%)이었다. 각 반별 최종 참여 인원은 17, 19, 20, 20, 21, 21명으로, 평균 참여 인원은 19.67명(SD = 1.51)이었다.

측정도구

소속감 지향성 척도(Belongingness Orientation Scale: BOS)

연구 참여자의 소속감 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Lavigne, Vallerand와 Crevier-Braud(2011)가 개발한 척도를 임상심리 전문가 2인의 검토 아래 번안과 역번안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

안한 문항을 활용했다. 소속감 지향성 척도는 성장지향 요인 5문항과 결핍감소 지향 요인 5문항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했다. 성장 지향성은 친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진정한 흥미를 반영한다(예. “나의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결핍감소 지향성은 사회적 공허감과 같은 대인관계의 결핍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반영한다(예. “나의 대인관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공허감을 해소시켜주기 때문이다.”). 김현정, 강하늘, 김진영(2018)은 요인분석 결과, 원판과 동일하게 2요인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성장 지향성은 소속에 대한 욕구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임을 확인했다. 결핍감소 지향성은 소속에 대한 욕구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외현 불안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Lavigne, Vallerand와 Crevier-Braud(2011)가 보고한 소속감 지향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성장 지향성 요인이 .79, 결핍감소 지향성 요인이 .88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현정, 강하늘, 김진영(2018)의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가 성장 지향성 요인이 .91, 결핍감소 지향성 요인이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2와 .75로 나타났다.

외로움 척도(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RULS)

연구 참여자의 외로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이 개발하고 김옥수(1997)가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개정된 UCLA 외로움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한다(예. “나는 소외된 것 같아 슬픈 느낌이 든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교현과 김지현(1989)은 척도는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울, 불안 및 신경증적 경향과 유의한 양적 상관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기분 상태 형용사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부정적인 기분 상태 형용사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공존타당도를 측정했다. 또한 저자들은 외로움에 대한 부정적 정서, 관계의 질, 고립활동, 이성친교 점수의 설명량을 제외해도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평가한 외로움 정도가 척도 점수의 변량을 6.6% 추가 설명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변별 타당도가 높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93으로 보고되었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경량(2015)의 연구에서는 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학기 초와 학기 말 조사에서 각각 .92와 .87이었다.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

연구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와 Mermelstein(1983)이 개발하고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의 5점 리커트식 척도(0=전혀 아니다, 4=매우 자주)를 사용하며, 부정적 지각 요

인 5문항과 긍정적 지각 요인 5문항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지각 요인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상황을 예측 및 통제 불가능하여 압도당한다고 지각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낸다(예. “지난 한 달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기분이 나빠진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긍정적 지각 요인은 개인이 일상의 문제 상황이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지각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예. “지난 한 달 동안, 짜증나고 성가신 일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요?”). 박준호와 서영석(2010)은 부정적 지각 요인은 우울, 불안, 부정적 정서, 정서 완화적 대처 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긍정 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음을 확인했다. 반면, 긍정적 지각 요인은 우울, 불안, 부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긍정정서, 문제집중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긍정적 지각 요인과 부정적 지각 요인 간 상관이 .29로 낮게 나타났다.

박준호와 서영석(2010)의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부정적 지각 요인이 .77, 긍정적 지각 요인이 .74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영건, 이은경, 김현정, 김진영(2018)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지각 요인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각각 .84와 .85로 나타났고 긍정적 지각 요인은 .78와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의 점수를 합산해서 지각된 스트레스 총점을 산출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각각 .78과 .80이었다.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연구 참여자의 친구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하나의 행위자는 점(node)으로,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는 선(link)로 표현된다. 이때, 하나의 점이 얼마나 많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산출한다. 연결 중심성을 구하는 수리적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C_D(i) = \sum_{j=1}^n x_{ij}$$

x_{ij} 는 노드 i 와 노드 j 의 연결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연결이 있으면 1, 없으면 0이다. n 은 네트워크 내부의 전체 노드의 숫자를 나타낸다. 네트워크가 방향성을 갖는 경우 연결 정도 중심성은 수신 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발신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신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로부터 선택받은 빈도를 의미하며, 발신 중심성은 하나의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선택한 빈도를 의미한다. 대인관계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발신 중심성 분석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얼마나 적극적인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수신 중심성 분석은 발신 중심성 분석보다 대인관계의 질에 대한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발신 중심성은 사회적 바람직성 등 네트워크와 무관한 변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수신 중심성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수신 중심성과 주관적으로 보고한 대인관계의 질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발신 중심성은 비선형적인(U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이민아, 신철균, 강정환, 2018).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친구 네트워크 수신 중심성을 측정했다. 시간의 흐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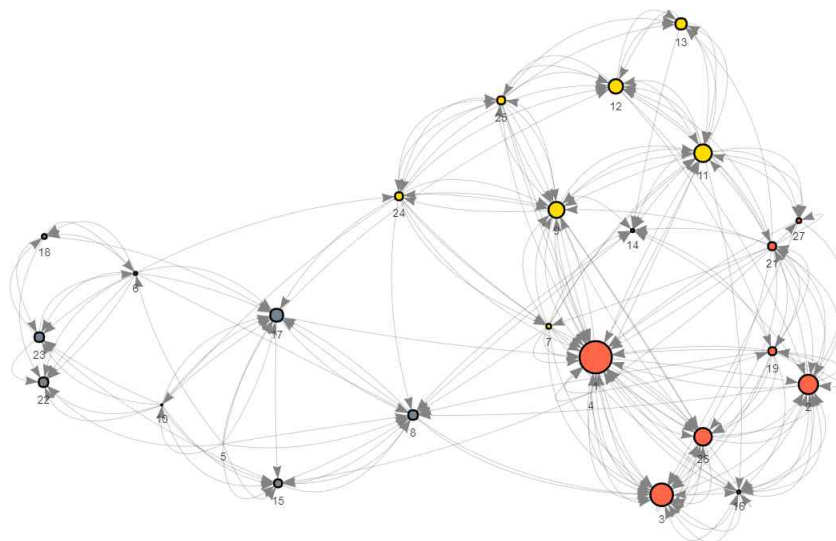


그림 1. 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네트워크 중심성 시각화 예시

다른 학급 내에서의 네트워크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의 범위를 연구 참여자가 속한 학급으로 제한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반 친구 중 1)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2) 자신을 가장 잘 도와주는 친구, 3) 가장 인기 있는 친구를 각 항목 당 최대 다섯 명을 선택했다. 각 항목에서 다른 친구에게 선택받은 횟수를 모두 더해 네트워크 수신 중심성 값을 산출했다. 산출된 수신 중심성이 높을수록 주변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의 수신 중심성을 그림 1에 시각화하여 제시했다.

분석방법

학기 초의 소속감 지향성이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를 예측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층 회귀모형(multilevel regression modeling)을 사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중심성은 소속 학급 단위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자료는 개별 연구 참여자의 자료가 각자가 속한 학급에 내재된(nested) 위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반별 자료 사이에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 수준 다층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속한 학급의 무선효과(random effect)를 분석에 반영했다. 다층 회귀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제한적 최대우도 추정법(REML,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했다. 소속감 지향성이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심리적 적응 및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측정 변인을 모형에 추가하여 통제했다. 모든 자료 분석에는 R을

사용했다(R Team Core, 2019). 다층 회귀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lme4 패키지를 사용했고(Bates, Mächler, Bolker, & Walker, 2015), 다층 회귀모형 추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lmerTest 패키지를 사용했다(Kuznetsova, Brockhoff, & Christensen, 2017).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분석 모형을 예로 들어 분석 모형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Level 1 - 학생 수준]

$$Y_{ij} = \beta_{0j} + \beta_{1j}(\text{학기 초 네트워크 중심성}) + \beta_{2j}(\text{학기 말 스트레스}) + \beta_{3j}(\text{학기 말 외로움}) + \beta_{4j}(\text{성장 지향성}) + \beta_{5j}(\text{결핍 감소 지향성}) + \gamma_{ij}$$

Y_{ij} : j반의 i번 학생의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β_{0j} : j반 학생들의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평균

β_{1j} :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학기 초 네트워크 중심성의 효과

β_{2j} :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학기 말 스트레스의 효과

β_{3j} :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학기 말 외로움의 효과

β_{4j} :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성장 지향성의 효과

β_{5j} :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결핍감소 지향성의 효과

γ_{ij} : j반 i번 학생의 개인 고유효과

[Level 2 - 학급 수준]

$$\beta_{0j} = \gamma_{00} + u_{0j}$$

γ_{00} : 전교생의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평균

u_{0j} :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j반 고유 효과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했다(표 1). 소속감 지향성의 두 하위 요인인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했다. 성장 지향성 및 결핍감소 지향성과 학기 초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은 모두 학기 초의 외로움 및 스트레스

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은 학기 초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성장 지향성 및 결핍감소 지향성과 학기 말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성장 지향성은 학기 말의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결핍감소 지향성은 학기 말의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은 학기 초에 측정된 변인 중 성장 지향성 및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과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학기 초의 외로움, 스트레스 및 친구 네트워크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학기 초의 심리적 적응 및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모형에 함께 투입하

표 1. 변인 간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N=118)

	1	2	3	4	5	6	7	8
1. 성장 지향성	-							
2. 결핍감소 지향성	0.47***	-						
3. t1_외로움	-0.33***	-0.18*	-					
4. t1_스트레스	-0.36***	-0.23*	0.54***	-				
5. t1_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0.14	0.05	-0.17	0.14	-			
6. t2_외로움	-0.13	-0.06	0.62***	0.52***	-0.20*	-		
7. t2_스트레스	-0.30***	-0.21*	0.34***	0.51***	-0.17	0.53**	-	
8. t2_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0.24**	0.07	-0.16	-0.17	0.51***	-0.26**	-0.31***	-
<i>M</i>	18.53	17.18	34.12	16.19	8.32	34.33	16.17	10.36
<i>(SD)</i>	(2.95)	(3.05)	(8.36)	(4.96)	(5.4)	(8.56)	(5.59)	(5.75)

주. t1 = 학기 초, t2 = 학기 말. **p* < .05. ***p* < .01. ****p* < .001.

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표 2, 3, 4). 분석 결과, 학기 초 외로움에 대한 성장 지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는 유의했으나($\beta = -0.30, p = .002$), 결핍감소 지향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4, p = ns$). 집단 내 상관계수인 ICC는 0.04로, 외로움의 총 분산 중 학급 수준이 4%, 학생 수준은 9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세희(2007; 임진섭, 2013에서 재인용)는 집단 내 상관계수가 15% 이상일 경우 조직의 효과가 강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학급 수준의 효과는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기 초 스트레스에 대한 성장 지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는 유의했고($\beta = -0.32, p = .001$), 결핍감소 지향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8, p = ns$). 집단 내 상관계수는 0.03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에 대한 성장 지향성($\beta = 0.08, p = ns$) 및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는

표 2. 학기 초 외로움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검증($N=118$)

	β	95% CI	P
고정효과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0.15	-0.33 - 0.02	0.090
성장 지향성	-0.30	-0.49 - -0.11	0.002
결핍감소 지향성	-0.04	-0.24 - 0.15	0.659
무선효과		분산	
학생 수준(σ^2)	0.87		
학급 수준(τ_{00})	0.03		
ICC	0.04		

주. ICC = 분석 모형의 급내상관계수로, 외로움의 전체 분산에서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을 의미

표 3. 학기 초 스트레스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검증($N=118$)

	β	95% CI	P
고정효과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0.11	-0.28 - 0.06	0.212
성장 지향성	-0.32	-0.51 - -0.12	0.001
결핍감소 지향성	-0.08	-0.27 - 0.11	0.416
무선효과		분산	
학생 수준(σ^2)	0.86		
학급 수준(τ_{00})	0.02		
ICC	0.03		

주. ICC = 분석 모형의 급내상관계수로, 스트레스의 전체 분산에서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을 의미

표 4.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검증(N=118)

	β	95% CI	P
고정효과			
학기 초 외로움	-0.15	-0.36 - 0.06	0.163
학기 초 스트레스	-0.07	-0.28 - 0.14	0.520
성장 지향성	0.08	-0.13 - 0.29	0.442
결핍감소 지향성	-0.06	-0.26 - 0.14	0.561
무선효과		분산	
학생 수준(σ^2)	0.91		
학급 수준(τ_{00})	0.10		
ICC	0.10		

주. ICC = 분석 모형의 급내상관계수로,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의 전체 분산에서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을 의미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6, p = ns$).

학기 말의 외로움, 스트레스 및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학기 말 심리적 적응 및 친구 네트워크 중

심성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층 회귀모형을 적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학기 초 외로움과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했을 때 학기 말 외로움에 대한 성장 지향성($\beta = 0.36, p = ns$) 및 결핍감소 지

표 5. 학기 말 외로움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검증(N=118)

	β	95% CI	P
고정효과			
학기 초 외로움	0.65	0.50 - 0.80	<0.001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0.27	-0.49 - -0.06	0.014
성장 지향성	0.36	-0.12 - 0.85	0.143
결핍감소 지향성	0.03	-0.41 - 0.47	0.880
무선효과		분산	
학생 수준(σ^2)	42.24		
학급 수준(τ_{00})	0.86		
ICC	0.02		

주. ICC = 분석 모형의 급내상관계수로, 스트레스의 전체 분산에서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을 의미

표 6. 학기 말 스트레스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검증(N=118)

	β	95% CI	P
고정효과			
학기 초 스트레스	0.49	0.31 - 0.68	<0.001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0.20	-0.36 - -0.05	0.010
성장 지향성	-0.12	-0.47 - 0.23	0.502
결핍감소 지향성	-0.12	-0.44 - 0.20	0.456
무선효과		분산	
학생 수준(σ^2)	21.85		
학급 수준(τ_{00})	0.15		
ICC	0.01		

주. ICC = 분석 모형의 급내상관계수로, 스트레스의 전체 분산에서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을 의미

향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3, p = .014$). 학기 초 스트레스와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함께 투입했을 때 학기 말 스트레스에 대한 학기 초 외로움($\beta = 0.65, p < .001$) 및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의 효과는 유의했다($\beta = -0.27, p = ns$) 및 결핍감소 지향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

표 7.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효과 검증(N=118)

	β	95% CI	P
고정효과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0.48	0.33 - 0.63	< 0.001
학기 말 외로움	-0.02	-0.20 - 0.15	0.808
학기 말 스트레스	-0.12	-0.29 - 0.06	0.192
성장 지향성	0.17	0.01 - 0.34	0.038
결핍감소 지향성	-0.07	-0.23 - 0.09	0.407
무선효과		분산	
학생 수준(σ^2)	0.59		
학급 수준(τ_{00})	0.13		
ICC	0.18		

주. ICC = 분석 모형의 급내상관계수로,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의 전체 분산에서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을 의미

았다($\beta = -0.12, p = ns$). 학기 말 스트레스에 대한 학기 초 스트레스($\beta = 0.49, p < .001$) 및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의 효과는 유의했다($\beta = -0.20, p = .010$).

한편,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의 중심성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독립적인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성장 지향성의 효과는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및 학기 말 심리적 적응 수준을 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유의하게 예측했다($\beta = 0.17, p = .038$). 이와는 달리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결핍 지향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07, p = ns$). 또한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학기 초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의 효과는 심리적 적응 수준을 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유의했다($\beta = 0.48, p < .001$). 집단 내 상관계수인 ICC는 0.18로, 외로움의 총 분산 중 학급 수준이 18%, 학생 수준은 8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학급 수준의 효과는 강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소속감 지향성의 두 하위요인인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이 중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친구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다.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해서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측정했고, 외로움, 스트레스,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을 학기 초와 학기 말에 각각 측정해 종단적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기 초 심리적 적응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장 지향성, 결핍감소 지향성 및 학기 초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중다회귀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했을 때, 스트레스 및 외로움에 대한 결핍감소 지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고 성장지향성의 긍정적인 효과만 유의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소속감 지향성과 군 생활 적응 간 관련성을 확인한 신대호(201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추구하려는 접근 동기에 기초한 대인관계 추구 노력이 사회적 거절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 동기로 대인관계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청소년기 적응을 돕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Nikitin, Freund, 2008).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기 말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소속감 지향성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초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중다회귀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했으며, 심리적 적응에 대한 성장 지향성 및 결핍감소 지향성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활발하게 대인관계를 추구해야 하는 학기 초에는 결핍감소 지향성이 아닌 성장 지향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기 초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이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학기 초에 소속감 지향성이라는 심리적 변인이 실제 친구 네트워크가 형성된 수준만큼이나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에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장 지향성이 결핍감소 지향성보다 학기 말 친구 네트워크를 더 잘 예측했다. 학기 말 네트워크 중심성에 대한 성장 지향성의 효과는 학기 초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과 학

기 말의 심리적 적응 변인을 모형에 함께 투입해도 유의했다. 결핍감소 지향성은 학기 초와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 모두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기 초에는 소속 집단을 형성 및 유지하는 데 소속감 지향성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학기 말에 가서는 학기 초의 소속감 지향성에 따라 주변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학기 초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은 학기 초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은 학기 말의 심리적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친구 관계 형성 및 유지 과정의 특징과 관련될 수 있다. 중학생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 초에 자신이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을 찾는 탐색의 시간을 갖지만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에는 이미 집단이 형성되어 새롭게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어려우며, 만약 학기 말이 되어서도 또래로부터 잘 수용되지 못하거나 따돌려지는 경우 외로움과 같은 내현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곽금주, 2000). 본 연구에서도 학기 초 네트워크 중심성은 학기 초의 심리적 적응 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기 말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낮은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기 말에는 소속감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을 때, 학기 말에 이르러서는 실제적인 친구 네트워크의 질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소속감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학기 초와 학기 말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학기 초 중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성장 지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중학생은 학기 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 관계 형성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학기 말에는 어느 정도 소속 집단이 정해지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적응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성장 지향성이 학기 초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는 학기 초에 성장 지향성에 기초한 심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단기-중단적 연구 설계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지향성 수준이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결핍감소 지향성과 달리 성장 지향성만이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는 것을 밝혔다. 소속감 지향성과 심리적 적응 및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확인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설계로 연구를 진행되었고 중단적 설계로 진행된 유일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핍감소 지향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수용 및 관여도에 대한 팀 동료의 평가가 부정적이며, 성장 지향성은 동료 평가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했다(Lavigne et al., 2011). 그러나 이 선행연구는 팀 프로젝트가 진행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아 성장 지향성이 대인관계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한계가 존재했다. 대조적으로 본 연구에

서는 학기 초와 학기 말 두 번의 측정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변화를 종단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장 지향성이 친구 네트워크 형성 및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는 학기 초 네트워크 중심성을 통제했음에도 성장 지향성이 학기 말의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성장 지향성의 시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장 지향성이 청소년의 친구 네트워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또래 평가에 기초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최초로 검증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면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보고가 실제 친구 네트워크를 왜곡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객관적인 친구 네트워크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산출한 네트워크 수신 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 능력, 위세 및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Wasserman & Faust, 1994). 본 연구는 네트워크 수신 중심성을 활용함으로써 친구 네트워크 내에서 한 개인이 가진 영향력을 수치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수신 중심성과 소속감 지향성 및 심리적 적응 수준 간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중학교의 한 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표본에서 반복 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 장면에서는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 수준을 평가할 때 자기 보고식 평가뿐만 아니라 친구 네트워크, 실제

학업 수행이나 교사의 관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학급 내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만을 측정했다. 이로 인해 통제된 조건에서의 친구 네트워크의 변화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같은 학급이 아닌 친구를 네트워크 분석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중학생의 경우 이전 학년에서 친해진 친구들과의 관계가 다음 학년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학급 내 친구 네트워크만 평가하는 것은 중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제 친구 관계 네트워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같은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 관계도 동시에 측정하여 학년 내 구성된 친구 네트워크와 심리적 적응 변인 간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의 연결 관계가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학급 내 네트워크의 밀도 (density)가 학생 개개인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Hanneman과 Riddle(2005)은 구성원의 관계가 대체로 비슷하게 연결된 네트워크와 소수의 핵심 구성원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이외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연결 관계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네트워크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섯 학급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학급 네트워크 밀도의 관련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학급 표본수가 적은 한계가 존재했다. 네트워크 분석은 개인의 특성과 더불어 구조적 특성의 관련성

을 연구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많은 학교와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 수준의 네트워크 중심성과 학급 수준의 네트워크 밀도가 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소속감 지향성의 하위요인별 개별효과 검증에 시도해온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여 연구가 설계되었다. Lavigne 등(2011)은 두 유형의 소속감 지향성이 모든 사람에게 서로 다른 수준으로 모두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소속감 지향성이 다른 소속감 지향성보다 우세하다고 가정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을 중다회귀분석 모형에 함께 투입하여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이 심리적 적응 및 친구 네트워크 중심성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평가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성장 지향성과 결핍감소 지향성이 둘 다 높은 수준으로 혹은 둘 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가능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설계 및 최신 문헌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고영건, 이은경, 김현정, 김진영 (2018). 멘탈 휘트니스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정서행동 특성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 연구*, 25(1), 237-256.

곽금주 (2000). 또래간 사회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77-89.

김명식 (2009).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2), 53-67.

김옥수 (1997). 한국어로 번역된 UCLA 외로움 사정 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7(4), 871-879.

김은진 (2015). 청소년기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6(4), 239-266.

김현정, 강하늘, 김진영 (2018). 한국판 청소년용 소속감 지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6-216.

박종효, 김진구, 윤영 (2017). 초등학생의 지각된 인기가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 연결망 구조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8(1), 25-49.

박준호, 서영석 (2010).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611-629.

송지원, 조한익 (2018).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5(8), 103-129.

신대호 (2019). 소속감 지향성과 군 생활 적응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이경량 (2015). 중학생의 외로움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이민아, 신철균, 강정한 (2018).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가? 친구 연결망의 크기가 중학생의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19(3), 627-649.

임진섭 (2013).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자활 성과만족에 관한 연구: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검

- 중. 한국사회정책, 20(4), 37-75.
- 최미경 (2006). 아동의 또래괴롭힘 및 자아존중감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133-145.
-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통계청 (2018). 2018년 사회조사.
- 통계청 (2021). 2021년 청소년 통계.
- 홍지은, 김보은, 최승원 (2020). 여대생의 대학 생활적응과 우울의 관계: 사회연결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9(1), 15-24.
- Arnett, J. J. (2015). Socialization in emerging adulthood: From the family to the wider world, from socialization to self-socialization.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 85-10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ates, D., Maechler, M., Bolker, B., & Walker, S. (2015). Package 'lme4'. *Convergence*, 12(1), 2.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Begen, F. M., & Turner-Cobb, J. M. (2012). The need to belong and symptoms of acute physic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6), 907-916.
- Choenarom, C., Williams, R. A., & Hagerty, B. M. (2005). The role of sense of belonging and social support on stress and depression in individual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9(1), 18-29.
- Cohen, S., Kamarck, T., & Mermelstein, R.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85-396.
- Coie, J., Terry, R., Lenox, K., Lochman, J., & Hyman, C. (1995).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4), 697-713.
- Conner, K. R., Britton, P. C., Sworts, L. M., & Joiner Jr, T. E. (2007). Suicide attempts among individuals with opiate dependence: The critical role of belonging. *Addictive Behaviors*, 32(7), 1395-1404.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4.
- Dvir, Y., Ford, J. D., Hill, M., & Frazier, J. A. (2014). Childhood maltreatment, emotional dysregulation, and psychiatric comorbiditie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2(3), 149.
- De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 (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the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6), 1799-1813.
- Eisenberg, N., Spinrad, T. L., & Sadovsky, A. (2006).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children. In M. Killen & J. G. Smetana (Eds.), *Handbook of moral development* (pp. 517-54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Gregory, A., & Weinstein, R. S. (2004). Connection and regulation at home and in

- school: Predicting growth in achievement for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405-427.
- Hagerty, B. M., Williams, R. A., Coyne, J. C., & Early, M. R. (1996). Sense of belonging and indicator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4), 235-244.
- Hanneman, Robert A., & Riddle, Mark. (2005).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Riversid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Kuznetsova A., Brockhoff P. B. and Christensen R. H. B. (2017). lmerTest package: Tests in linear mixed effects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2(13), 1-26.
- Lalande, D., Vallerand, R. J., Lafrenière, M. A. K., Verner Filion, J., Laurent, F. A., Forest, J., & Paquet, Y. (2017). Obsessive passion: A compensatory response to unsatisfied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85(2), 163-178.
- Lavigne, G. L., Vallerand, R. J., & Crevier-Braud, L. (2011). The fundamental need to belo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growth and deficit-reduction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9), 1185-1201.
- Leary, M. R., & Cox, C. B. (2008). *Belongingness motivation: A mainspring of social action. Handbook of motivation science (pp. 27-4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Newcomb, A. F.,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
- Nikitin, J., & Freund, A. M. (2008). The role of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motives for subjective well being and the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Applied Psychology*, 57, 90-111.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Parkhurst, J. T., & Asher, S. R. (1992). Peer rejection in middle school: Subgroup differences in behavior, loneliness, and interpersonal conc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28(2), 231-241.
- Perlman, D., & Peplau, L. A. (1984). Loneliness research: A survey of empirical findings. In L. A. Peplau & S. E. Goldston (Eds.), *Preventing the harmful consequences of severe and persistent loneliness* (p. 13-46).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Pillow, D. R., Malone, G. P., & Hale, W. J. (2015). The need to belong and its association with fully satisfying relationships: A tale of two measur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4, 259-264.
- Team, R. C. (2019).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version 3.0. 2*. Vienna, Austria: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2013.
- Rusell, D., Peplau, L. A., & Curtona, C. E.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te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1-80.
- Sandler, I. N., Miller, P., Short, J., & Wolchik, S.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A. (1989).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for children in stress.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277-307.
- Stewart, W. (2004). The role of perceived loneliness and isolation in the relapse from recovery in patients with anorexia and bulimia nervosa.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2(2), 185-196.

원 고 접 수 일 : 2021. 02. 10.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6. 23.

최종게재결정일 : 2021. 08. 11.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Belongingness Orientation on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Friend Networks: A Short-term Longitudinal Social Network Analysis*

Seungjin Lee

Young-gun Ko[†]

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Doctor's Student

Professor

Intimate friendships and a sense of belonging have positive effects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adaptation. Belongingness orientation is the motivation to belong. It is divided into growth orientation and deficit-reduction orientation, both of which have different effects o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adolescents' belongingness orientation affected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friend networks. Students in their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were surveyed both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spring semester. Friend networks were measured through network centrality analysis. 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 produced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major result was that the correlations between growth orientation and loneliness and between growth orientation and stress at the beginning of the spring semester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when friend network centrality was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but the correlation between deficit-reduction orientation and loneliness and between deficit-reduction orientation and stres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econd major result was that growth orient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friend network centrality at the end of the spring semester. This effect was significant even when friend network centrality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 at the end of the spring semester were added to the analysis model. The third major result was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friend network centrality at the end of the semester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when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s at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semester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d a short-term longitudinal design and empirically demonst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longingness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level of adolescents and between belongingness orientation and the development of friend networks. Lastly, we discusse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ovid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growth orientation, deficiency reduction orientation, loneliness, perceived stress, network centrality analysi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a faculty research grant from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t Korea University in 2019

† Corresponding Author: Young-gun Ko, 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Anam-Ro 145, Seongbuk-Gu, Seoul
Tel: 02-3290-2863, E-mail: elip@korea.ac.kr